

「새 1」 _ 박남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인간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새'는 인위적이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은 순수한 자연을 표상하며,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비정한 인간을 표상한다. 화자는 대조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손에 파괴된 자연을 형상화하는 한편, 순수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 1: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 2: 가식 없는 순수성을 지닌 새
- 3: 새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포수

✓ 주제 :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 ① '새는 울어 ~ 만들지 않고, 지어서 ~ 가식하지 않는다'와 같은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새')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에서 '노래'는 어떤 것을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행하는 순수한 '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이다.
- ③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에서 '체온'은 연약한 존재인 새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 ④ 이 작품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순수성을 지닌 자연물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했다. 특히 자연물이 강하고 포악한 존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이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⑤ '바람의 여울터'와 '나무의 그늘'은 '새'와 같은 순수한 자연물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⑥ '포수'는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로군.
- ⑦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은 자연물의 모습, 즉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지닌 존재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 ⑧ 포수가 쏘는 것이 '순수'가 아니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물이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로군.

【THE - 깊은 독해】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바람의 여울터’는 바람이 세계 불면서 지나가는 곳으로, 뒤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작품에서는 자유롭고 순수한 공간, 아름다운 자연 등을 가리킨다.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 노래한다.

→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속삭이듯 들리는 나무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는 뜻으로, 새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자연 속에서 지저귀는 뜻이다. 이때 나무의 그늘은 바람의 여울터와 문백상 동의어로, 아름다운 자연을 말한다. ‘새’는 가식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성을 상징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여기서 ‘그것’은 노래를 가리킨다. 새가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노래인 줄도 모른다는 것은 그 행위를 가식하거나 의식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때 ‘노래’는 새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매개물이며,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라는 표현은 가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순수함을 나타낸다. ‘새는~’부터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새가 자신의 행위가 사랑인 줄도 모른다는 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가식하거나 의식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그것’은 위와 달리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한다. ‘~인 줄도 모르면서’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두 놈이 부리를 /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 새의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순수한 사랑의 구체적 형상화) 새의 이러한 행동이 사랑인데, 새는 이런 행동이 사랑인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새의 사랑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다. 이때 ‘체온’은 순수한 사랑을 뜻한다.

▶1연: 새의 꾸밈 없는 노래와 사랑

2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 새는 인위적인 울음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울어 뜻을 만드는 것’은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말한다.

지어서 교태로 /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 새는 가식적인 동장을 통해서 사랑을 거짓되게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지어서 교태로’라는 것은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 말의 이면에는 인간은 사랑을 가식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식적인 인간과 순수한 새의 대비가 나타난다.

▶2연: 새의 순수함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 ‘포수’는 폭력적인 현대인으로, ‘납’과 함께 비정한 현대 문명,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한다. ‘납’ 또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 포수는 새를 향해 총알(‘한 덩이 납’)을 발사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순수’는 새를 의미하며, 시인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매양 쏘는 것은

→ ‘쏘는 것’은 순수함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포수가 새를 향해 총을 쏘서 얻은 것이라고는) 순수성을 파괴한 것뿐이라는 의미이다. 이때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파괴된 순수성(자연, 생명)등을 의미한다. ‘한 마리에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문명으로 파괴하는 것이 플리적인 것에 한정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새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새의 본질은 순수성은 얻지 못했음을 즉, 새가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연: 새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포수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순수성을 추구하는 이]
- 상황 :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새가 어떻게 파괴되든지 보여 줌 [포수가 순수의 표상인 새를 쏜]
- 정서·태도 : 순수성에 대한 응호, 문명 비판적

[연 관 - 기 출 문 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1」-

(나)

어머니는 그럭이라고 쓰고 읽으신다
그럭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럭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럭을 앞에 두고
그럭, 그럭 중얼거리려 보면
그럭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럭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A]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럭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B]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2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럭」-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 낡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C]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D]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E]

<그러나 내 걱정 of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박지원, 「창애(蒼崖)에게」-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룩’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룩’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

하늘에 깔아 놓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지금 저기 보이는 ㉠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빠삭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면 아방(我方)의 따스하고 슬픈 ㉣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지막 ㉤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특정한 구절을 연마다 반복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자연물에 빗대어 인간의 삶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색채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새 1」에서 시인은 지상의 현실과 대비되는 천상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상징하여 존재의 이상적 상태인 순수, 즉 본질을 포착하려는 탐구열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감각적 심상과 비유를 통해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자연의 생명력과 순수를 향한 동경이 가득 차 있지만, 시인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천상적 존재인 ‘새’와 지상적 존재인 ‘포수’가 서로 대비되어 나타나는군.
- ②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③ ‘울어’와 ‘지어서’는 순수를 획득하기 위한 시인의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군.
- ④ ‘포수’가 ‘순수를 겨냥’하는 것은 본질을 포착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겠군.
- ⑤ ‘매양 쏘는 것’이 ‘상한 새’라는 표현을 통해 현실의 한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비에게 있어 과제의 성격을 지닌 대상이다.
- ② ㉡: 나비의 고단한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③ ㉢: 나비가 현실 극복을 위한 도전을 포기하게 한 대상이다.
- ④ ㉣: 나비가 비행하는 공간이 대립적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 나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상징한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 있인 줄 알았는데 새네
저런 곳에도 앓을 수 있다니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 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보았다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㉞ 아직 덜 되어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황한다

나는 다시 배운다

㉞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 천양희, 「새가 있던 자리」

*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여성 화가. 교통사고로 수 차례 수술을 받은 후 느낀 삶의 아픔을 미술 작품으로 드러냄.

* 「부서진 기둥」: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형상화한 작품.

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다음은 「새 1」의 작가와의 가상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작가는 새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고, ‘진정한 순수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자: 「새 1」을 창작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작가: 나는 초현실보다는 현실에 더 관심이 많고,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원시적 삶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삶을 넘보고 엿듣는 것에 익숙한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 결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요. 원시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는데, 이러한 건강성에 대한 동경심을 그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 ①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를 하는 새의 모습을 부각하는 점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모습이 인간의 참된 본질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군.
- ② ‘울어 / 뜻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점은, 인위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원시적 삶의 순수를 지켜가는 정신을 강조하려 한 것이군.
- ③ 새를 향한 ‘한 덩이 납’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는 점은, 세속적인 문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군.
- ④ 포수가 ‘순수를 겨냥’했으나 ‘매양’ 실패하는 결과를 드러내는 점은, 잘못된 행위를 지속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려 한 것이군.
- ⑤ 포수가 잡은 새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인위적인 문명의 수단으로는 정신의 건강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려 한 것이군.

10. (나)의 ㉞~㉞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외양의 유사성 때문에 시적 대상의 정체를 혼동했던 화자가 뒤늦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 ② ㉞: 시적 대상의 처지와 달리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화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암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㉞: 시적 대상을 마주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바를 화자 자신의 지난 경험과 연결 지으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④ ㉞: 삶의 완전성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 화자의 뒤늦은 체념을 제시하며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⑤ ㉞: 시적 대상에서 얻은 깨달음과 삶에 대한 통찰을 대구적 표현으로 역설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㉔

⑤ (가)는 ‘새’와 ‘포수’, ‘한 덩이 낱’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대비시켜 인간의 비정성, 비순순성 : 새의 순수성, 혹은 인식에 대한 노력 : 인식의 실패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그릇’과 나의 ‘그릇’을 대비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도 ‘심장’(감성)과 ‘뇌수’(이성)을 대비시켜 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대비’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 (나), (다) 모두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나 시행이 없다.
- ② (가)에는 ‘~ 줄도 모르면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와 (다)에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 (나), (다) 모두 역설적이라고 볼 만한 표현이 없다.
-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정답 SCAN] ㉔

④ <보기>의 ㉔는 의미상 (나)의 ‘그릇’에 대응한다. 즉, (나)의 ‘그릇’이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객관적이고 삶의 체취가 묻어 있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기>의 ㉔도 단지 천자문에 올라있는 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은 ㉔이다. 또한 (다)의 ㉔도 ‘목청’(감정)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문맥상 ㉔와 가깝다.

[오답 SCAN]

- ㉔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단순한 배경이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다.
- ㉔은 문맥적 의미상 ㉔와 대조된다.
- ㉔은 ‘목청’이 제거된 ‘이야기’와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이므로 단순한 글자로서의 ‘천(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3.

[정답 SCAN] ㉔

⑤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를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 혹은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등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가 지향하는 상황이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환상 세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나)에는 환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SCAN]

- ① ‘새’가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이면에는 이와 대비되는 ‘포수’(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포수’가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는 표현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 ② 어머니가 ‘그릇’을 ‘그릇’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나)는 연 구분을 하지 않은 20행 짜리 단연시인데 반해 (가)는 숫자를 이용하여 뚜렷이 연 구분을 하고 있다.
- ④ (가)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나)는 어머니와 대비되는 ‘나’가 뚜렷이 드러난다.

4.

[정답 SCAN] ㉔

④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의 ‘심장의 박동’은 ‘감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는 말에 감성을 불어넣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그릇’이 사전에 등재된 ‘죽은 단어’라면, ‘그릇’은 ‘어머니’의 삶에서 창조된 ‘살아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그릇’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② ‘그릇’은 ‘나’가 국어사전에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릇’은 ‘어머니’가 삶을 통해 ‘만드신’ 말이다. 즉 ‘그릇’이 더 창조적이다.
- ③ [C]를 시(이야기)와 음악(노래)가 분리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 ⑤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는 감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처의 원인이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E]는 ‘뇌수’와 ‘심장’, ‘이야기’와 ‘노래’, ‘감성’과 ‘이성’이 긴밀히 결합된 시를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5.

[정답 SCAN] ④

- ④ (가)는 순수의 표상인 ‘새’에 빗대어 본질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탐색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나비’의 비행을 통해 분단이라는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와 (나)에는 모두 반영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경우 시간의 경과는 나타나지만 화자의 정서는 ‘나비’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으므로, 정서적 추이를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인 줄도 모르면서’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하지만 매 연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나)의 경우 연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시푸런 강’과 ‘장밋빛 무늬로 타는’ ‘서녘 하늘’에서 색채의 대조가 나타나지만, (가)에서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6.

[정답 SCAN] ③

- ③ ‘올어’와 ‘지어서’는 1연에서 제시된 ‘새’의 무의식적이고 순수한 행위와 대비된 작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행위 자체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행위의 주체로 상정된 것이 시인이거나 시인의 분신이 아닌, 시인이 지향하는 대상인 ‘새’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새’는 시인이 지향하는 이상적 상태인 순수를 표상하는 것이므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날아오르는 존재라는 점에서 천상적 존재로 볼 수 있고, ‘포수’는 그와 반대되는 현실적 존재로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지상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서로의 쪽지에 파묻’는 행위는 사랑을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사랑이라는 관념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포수’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상한 새’, 즉 순수의 훼손을 초래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 자체는 ‘순수’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을 포착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포수는 순수를 얻기 위해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상한 새’만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시키고 마는 현실의 한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정답 SCAN] ③

- ③ 나비는 ‘벽’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고달픔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비행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벽’을 현실 극복을 위한 도전을 중단하게 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시푸런 강’은 ‘산’과 더불어 나비가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대상이므로 나비에게 있어 과제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 ‘생채기’는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의 치열한 삶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나비의 고단한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나비’는 ‘철조망’을 중심으로 ‘짜늘한 적지’에서 ‘아방’으로 비행하고 있으므로, 나비가 비행하는 공간은 ‘철조망’을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꽃밭’은 나비가 ‘마지막’으로 ‘그리’는 대상이므로 나비의 궁극적 지향을 나타낸다.

8.

[정답 SCAN] ②

- ② (나)에서는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취를 위해서는 힘겨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에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색채 대비를 활용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묘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9.

[정답 SCAN] ③

- ③ ‘한 덩이 납’은 문명의 힘에 의존하면서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의 비정함 혹은 순수를 인위로 바꾸려하는 인간의 우매한 속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SCAN]

- ①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를 하는 새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울어 / 뜻을 만들지 않’는 모습은 인위적인 문명을 비유하는 ‘한 덩이 납’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④ ‘순수를 겨냥’했으나 ‘매양’ 한 마리 상한 새를 쏘고 만다는 것은 문명의 힘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행위를 지속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포수가 쏜 것이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였다는 것은 문명적 삶을 비유하는 ‘한 덩이 납’으로는 순수한 정신을 획득할 수 없으며, 문명에 의해 순수가 파괴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문명의 수단으로는 정신의 건강성을 획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0.

[정답 SCAN] ④

- ④ ㉔은 뒤에 등장하는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되, 완전성을 지향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삶의 완전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체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㉑은 ‘앞’인 줄 알았던 대상이 ‘새’라는 것을 확인하고, 편안하게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 ② ㉒에서 화자는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과 달리 바람이 부는 허공 속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새’에게 자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새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자신도 새를 닮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㉓은 새를 주목하면서 얻은 교훈을,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었던 적이 있다는 지난 경험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시상을 화자 자신의 삶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⑤ ㉔은 새를 주목하면서, 미로를 헤매고 완성에 도달하지 못해 방황하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유사한 어구를 짝짓는 대구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